



마법 가위

글 · 그림 용달 / 책고래



지각대장 건이의 재미있는 상상 지루했던 학교가 놀이터가 되었어요!

지각대장 건이가 가지고 있는 특별한 가위 이야기예요. 건이의 마법 가위는 무엇이든 자를 수 있어요. 아침마다 건이를 깨우는 시계도 짹둑, 숫자만 봐도 머리가 빙글빙글 도는 수학시간, 꼼짝없이 앉아 있어야 하는 의자와 책상도 짹둑, 교실문도 짹둑……. 가위가 옮겨갈 때마다 지루했던 학교의 모습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놀이터로 말이지요. 치열한 경쟁 속에서 하루하루 힘들게 살아가는 아이들에게 학교가 ‘쉼터’가 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공부를 위해서 억지로 다니는 것이 아니라 친구들과 종알종알 수다를 떨고 마음껏 운동장을 뛰어놀면서 지친 몸과 마음이 회복되고 성장하는 곳일 수는 없을까요? 보통 ‘학교’라고 하면 아이들이 암전히 책상에 앉아 선생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교실의 풍경, 삼삼오오 모여서 과제나 체험활동을 하는 모습을 떠올리곤 합니다. 하지만 《마법 가위》에서 작가가 그린 학교는 조금 다릅니다. 하고 싶은 놀이를 신나게 하는 곳, 웃음을 짓게 만드는 곳이지요. 비록 현실과 다르지만 한바탕 기분 좋은 상상을 하고 나면 마음이 가벼워지지요.

독후 이해 활동

- ㉠ 건이는 마법가위로 지각을 알려주는 시계 먼저 짹둑 잘랐어요. 내게도 마법가위가 생긴다면 제일 먼저 하고 싶은 일을 그리고 설명해 보아요.



- Q 건이가 만든 아이들만 들어올 수 있는 몬스터 교문이에요. 몬스터 교문에 들어 보내고 싶은 사람들을 적고 이유도 설명해 보아요.



독후 활동 이어가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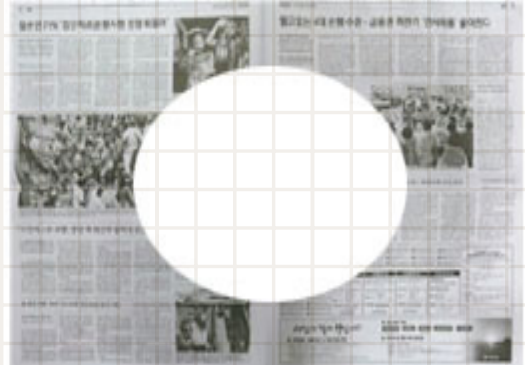
- Q 가위로 빨대를 잘라 신기한 팬파이프를 만들어 연주해 보아요.



준비물: 여러 가지 색깔 빨대,
안전가위, 스카치 테이프

만드는 법: ① 빨대를 서로 길이가 다르게 잘라 주어요
② 자른 빨대를 키 순서대로 늘어놓아요.
③ 빨대를 서로 연결해 이어붙여요.
④ 긴 빨대부터 짧은 빨대까지 불며 소리가
어떻게 다른지 알아보아요.

- Q 친구들과 신문지 터널을 통과하며 게임을 해 보아요. 신문에 동그라미, 세모, 네모 등 여러 가지 모양의 터널을 만들어 찢어지지 않게 통과해 보아요. 도형도 배우고 신체활동 능력도 키울 수 있어요.



- Q 건이가 만든 마법가위처럼 내게 필요한 물건을 발명해 볼까요? 아래 그림처럼 주변에 있는 다양한 물건을 살펴보고 새로운 물건으로 만들어 보아요.



우유곽을 이용해
연필꽂이와 서랍을
만들 수 있어요.